

**유다서 묵상 3**  
(10/23/2020, 금)

찬양: 259(193)(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성령님의 조명을 위한 기도: 다함께 말씀을 읽고 나누고 묵상할 때 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말씀읽기: 유다서 1:5-7

**말씀에 대한 이해**

사도 유다는 오늘 본문에서 교회와 성도들의 영혼을 어지럽히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이단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는 의미로 성경에 기록된 대표적인 세 가지 죄악과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하게 합니다.

**말씀 속에 담아 주신 메시지**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으나 타락한 사람들이 당한 심판. 5 절 -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유다는 먼저 원래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생각나게 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성경 66 권은 각 책마다 특성이 있고, 장르도 다르며, 기록 연대와 배경, 그리고 저자도 다릅니다. 아울러 메시지도 매우 다양합니다. 그럼에도 성경을 깊이 있게 읽으면 그 속에 공통적으로 담긴 메시지, 하나로 연결되고 일관성 있게 계속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반복적으로 강조되는 진리가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설교와 성경공부를 통하여, 지속적으로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반복적으로 되새기며 기억하게 하십니다. 유다는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심판을 다시 언급합니다.

유다는 먼저 출애굽의 은혜를 입었지만 타락함으로 심판을 받은 사람들에게 대해 말씀합니다. 그들은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체험하고도 타락한 사람들입니다. 유다는 그들이 멸망당한 이유는 자신들을 구원하시고 수많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임재를 증거하시고 동행하시며 큰 은혜를 주셔도, 하나님의 존재를 끝까지 믿지 않고 거부하고 불순종하며 심지어 대적하는 사람들의 끝은 결국 패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큼 받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할 만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믿지 않고 끝까지 저항하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자신들이 지는 것입니다.

**타락함으로 심판을 받은 천사들. 6 절 -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 구절에서 타락한 천사들은 자신의 원래의 자리, 원래의 신분을 지키지 아니한 자들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천사들”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앙겔로스’로서, 이것은 문자적으로 ‘(메신저로서의) 사자’, ‘사절’, 혹은 ‘대사’ 등의 의미가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존재로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천사들은 하나님의 창조물로서 고결하고 아름다우며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들이었으나, 교만함으로 자신을 높이려고 했고, 하나님의 자리에까지 오르려고 하다가 타락한 존재들입니다. 유다는 이들이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당한 심판을 표현합니다. 유다는 천사라 하더라도 교만함으로 타락할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파멸을 피할 수 없음을 강조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 백성들이 당한 심판. 7 절 -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사도 유다는 소돔과 고모라와 인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의 성적 타락을 언급하면서 그 결과는 심판이라고 말씀합니다. “음란하며”라고 번역된 표현의 그리스어의 원형은 ‘엑포르뉴오’인데, 이 단어는 ‘간음하다’라는 뜻의 ‘포르뉴오’라는 단어와도 연결

된다.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Porno’는 ‘포르뉴오’에서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쓰인 ‘엑포르뉴오’라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간음의 의미를 넘어서서 변태성행위를 포함하며, 그러한 행위를 통하여 간음하는 극도로 타락한 성적 죄악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는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라고 하였는데, 이 때의 “그들”은 천사들입니다. 이 말은 교만함으로 자신의 자리를 이탈하고 자신의 직임을 떠나버림으로 타락한 천사들처럼 타락하여 그러한 음행을 저질렀음을 의미합니다. 유다는 천사들의 타락과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성적 타락을 같은 수준의 타락으로 보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울러 유다는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라는 표현도 쓰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육체”라는 말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사르크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사람과 짐승의 ‘살’ 혹은 ‘육’을 의미하며, 성경에서는 ‘몸’, 혹은 ‘육체’를 의미하는 말로 쓰입니다. 더 나아가 자연적이고 육체적인 ‘혈통’, ‘친족관계’, 인간의 감각적 ‘본성’, ‘육정’ 등의 의미로도 쓰입니다. 유다는 본문에서 이 단어를 사용하면서 죄악된 육정에 젖은 육체를 나타내고 있는 듯 합니다.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라는 표현은, ‘다른 육체로 음행을 하다가’로 다시 읽을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것을 ‘부자연스런 정욕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아마도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행하였던 동성연애를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변태적인 성적 타락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그러한 성적 타락이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거울”이 됨으로 사람들이 따라서는 안되는 모범이 되어 스스로를 돌아보고 경각심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울”이라는 말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데이그마’인데, 이 단어는 ‘본보기’ 혹은 ‘표본’이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불의 형벌을 내리심으로 사람들에게 본보기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교만함으로 타락한 천사들의 죄악,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의 죄악으로 인해 그들 각자가 당한 심판과 멸망은 지금도 우리에게 “거울”이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역사 속에 있었던 다양한 사건들과 우리를 두렵게 하는 타락의 결과들을 보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스스로 조심함으로 하나님에 바로 서게 하십니다. 유다는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게 함으로 영지주의자들의 잘못과 그들이 당할 결과를 경고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경고는 유다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 뿐만 아니라, 본문을 읽는 지금 우리의 경각심을 요구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기록된 죄악의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시금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들이 당한 결과들을 되새기게 하심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기도했던 아브라함과 같이 이 땅을 위해 기도하게 하십니다. 패역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오늘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며 영적 승리를 얻으시는 여러분의 믿음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 주신 말씀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 주신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 함께 나눌 기도제목

1. 오늘도 나 자신에게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권고하시고, 경고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2. 타락한 세상을 보며 주 안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면서, 이 땅을 위한 중보기도에도 소홀함이 없게 하옵소서.
3. 조국과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은혜로 다시 회복되고 갱신되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4. 오늘 하루의 삶이 주님께 합당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목상이 주님 앞에 열납되게 하옵소서(시 19:14).